

바흐 IOC위원장 연임 '4년 더' 도쿄 올림픽 개최 의지 재확인

"7월 23일 개최 의심의 여지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토마스 바흐(68)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연임을 확정했다.

단독 입후보한 바흐 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137차 IOC 총회 투표에서 유호 투표 수 94표 중 찬성 93표, 반대 1표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 득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독일 출신인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이 폐막하는 내년 8월 8일 이후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다.

IOC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첫 임기는 8년, 두 번째 임기는 4년이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서독 펜싱 대표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바흐 위원장은 2013년 IOC 총회에서 자크 로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돼 8년간 IOC를 이끌었다

"압도적인 신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 문과 귀,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말한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올림픽 슬로건을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에서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함께"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는 우리의 핵심 가치인 연대에 대한 강력한 약속과 새로운 세계의 도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겸손한 적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임을 확정된 바흐 위원장 앞에는 코로나19 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연임이 확정된 뒤 무릎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로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 신장과 홍콩에 대한 인권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도쿄가 준비가 가장 잘 된 개최지라면서 "문제는 올림픽 개최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열릴지"라고 재차 강조하며 "개막식이 7월 23일 열릴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어젠다 2020+5'로 불리는 IOC 개혁 프

로그램도 그가 두 번째 임기에서 진행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는 IOC의 디지털화나 선수들의 권리 증진, 올림픽 개최지를 돈이 덜 들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15개 권고 사항이 담겼다. 바흐 위원장은 해당 어젠다를 "새로운 세계를 위한 우리의 비전"이라며 "코로나19 위기는 세상을 엄청난 방식으로 바꿔놨다. 누구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꿈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을 향한 집중 11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NCAA(전미대학체육협회) 네브래스카 콘허스커스와 펜 스테이트 니타 니라이온스의 경기에서 루즈볼을 잡기 위해 두 선수가 몸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우즈 상태 좋아져... 몇 주 내 퇴원할 수도"

로리 매길로이(32·북아일랜드)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의 상태를 전하며 "질하면 몇 주 내로 퇴원해서 귀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길로이는 11일 미국 NBA '투나잇쇼'와 인터뷰에서 "최근 우즈와 연락이 닿았다. 아마 다른 선수들도 우즈와 연락했을 것 같은데 우즈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을 앞둔 매길로이는 "지금처럼 순조롭게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 주나 그 이후로 퇴원해서 귀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

내며 회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는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접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즈는 필드 복귀 시기는 돌쩌지고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다.

매길로이는 "현재로서는 우즈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즈가 지난주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연락을 해왔다고도 밝혔다.

매길로이는 "우즈가 격려 메시지와 함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더라"고 소개했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브라이언 디샴보(미국)도 당시 4라운드를 앞두고 우즈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매길로이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우즈의 패용을 기원하며 우즈가 대회 마지막 날 즐겨 입는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착용했다.

한편 2019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매길로이는 2018년 챔피언 웨브 심프슨(미국), 2008년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올해 대회 1, 2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도쿄행 도전 남자핸드볼 '칠레부터 넘어라'

13일 첫 경기...4개국 풀리그 벌여 상위 2개 팀 본선 티켓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13일(한국시간) 칠레를 상대로 9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3일 오전 1시 30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남자 핸드볼 최종 예선 1차전 칠레와 경기를 치른다.

이번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은 한국과 칠레, 브라질, 노르웨이 4개국이 출전해 풀리그를 벌여 상위 2개 팀이 올림픽 본선 티켓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한국 남자 핸드볼은 2012년 런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을 노린다.

이번 대회에서 2위 안에 들려면 현실적으로 칠레와 브라질을 잡아야 한다.

노르웨이는 올해 1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6위에 오른 강호로 한국, 브라질, 칠레에

비해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2개국이 출전한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브라질이 18위, 칠레 27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31위에 그쳤다. 또 칠레와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33-44로 크게 졌지만 이 대회에 우리나라는 대학 선발을 파견했기 때문에 실업 정에 멤버들로 구성된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 대표팀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월에 끝난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득점왕에 오른 박광순(하남시청)과 대표팀 애이스 정의경(두산), 골키퍼 이창우(인천도산공사) 등이 가세해 올림픽 본선 티켓에 도전한다.

칠레전을 마치면 우리나라는 14일 오전 1시 30분 브라질과 2차전을 치르고, 최종전은 15일 오전 4시 노르웨이를 상대로 진행된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2019년 9월 올림픽 핸드볼 사상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이 열리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한국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연합뉴스

"올 시즌 여자골프 모든 대회 정상 개최"

김정태 KLPGA회장 취임...연금제도 도입해 복리 증진

김정태(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정태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KLPGA 정기총회를 통해 제14대 회장에 추대됐다.

그는 정기총회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2021시즌 모든 대회의 정상 개최를 약속했다.

김 회장은 "올해 대회는 철저하고 편리한 비대면 출입 관리, 온라인 문진 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회를 찾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모든 대회가 다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대회를 잘 치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취임 소감도 밝혔다.

"KLPGA와 한 가족이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LPGA는 골프가 친근한 스포츠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KLPGA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복리 후생 제도 정착,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 및 추진, 원활한 소통을 임기 4년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약속한 김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골프 리더스 포럼을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KLPGA 선수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아시아 투어로 확대,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제도가 약하다고 판단, 다양한 수익 사업을 발굴해 정회원은 물론 준회원들도 내는 회비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고 약속했다.

또 "1부 투어가 잘 되려면 2부, 3부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 2, 3부 투어 일정이나 있지 않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지만 대회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부 투어를 더 활성화해서 정규 투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리스타트
3관	웨이 다운, 유어 아이즈 텔
4관	미나리
5관	미션 파서블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7관 씨네커피	소울, 허트 로커
8관 씨네커피	브레드, 암모나이트, 카오스 워킹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